

2024 * No.49

November+December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
독자정보 변경과 구독 중지는 웹진과 독자 엽서,
전화를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자 엽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당신과
견고 싶은
설원의 풍경



©클로드 모네_〈아르장튀유의 설경〉

동서식품



아르장퇴유의 설경_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1840~1926]
1875년 作 | 71.1cm x 91.4cm | 유채, 캔버스

『아르장퇴유의 설경』은 모네가 파리 북서쪽 센강변에 자리한 아르장퇴유라는 마을에서 지낼 때 그린 그림입니다. 회색과 파란색의 색채로 흐린 겨울 오후의 황량함을 표현해 차분하고 고요한 겨울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눈 덮인 강변과 나무, 그리고 건물이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경계는 흐릿해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인상주의 특유의 붓 터치와 색상의 미묘한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CONTENTS

통 권 제 49호
발행일 2024년 11월 1일 발행(격월간·비매물)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등록번호 마 00005
발행인 김광수
발행처 동서식품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55
홈페이지 www.dongsuh.co.kr
편집·디자인 케이아트만(주) (02)511-7053
인쇄 신영 (02)2275-1600

구독 관련 문의_편집실: 02-511-7053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Vol. 49 2024. 11+12

- | | | |
|----|-----------|---------------------------------|
| 04 | 향기로운 시간 | 그리운 마음은 그대로 남겨두고 |
| 06 | 차 한 잔의 향기 | 앤티크 그릇 수집가 김지연 |
| 10 | 문학의 향기 |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 |
| 14 | 길 위의 시간 |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
갈라파고스, 에콰도르 |
| 20 | 올댓 커피 | 커피와 같등으로 만들어진 엘살바도르 |
| 24 | 한국의 재발견 | 입동, 감나무에 까치밥 남겨두는 조선의 마음 |
| 28 | 클래식 산책 | 겨울을 닮은 예술가 |
| 32 | 도시를 걷다 | 나주읍성 고샅길 |
| 36 | 친절한 고전 | 삼국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이름을 얻는다 |
| 38 | 우리집 식물원 | 우리집 베란다 식물 월동 준비 |
| 40 | 일상의 향기 | 불필요한 것과의 이별, 정리 |
| 44 | 행복 레시피 | 과메기 오일 파스타
& 코코넛 티라미수라떼 |
| 46 | 동서 뉴스 | 동서식품의 다양한 소식 |
| 48 | 삶의 향기 뉴스 | 독자 추천 도서와 엽서 분석 |
| 50 | 게시판 | 독자 의견 및 퀴즈 |
| 51 | 브랜드 스토리 | 동서식품 제품 이야기 |

그리운 마음을 그대로 남겨두고

삶이 고달픈 날이면 당신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날은 이제 편안함, 따뜻함,
커다란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 가도
'잘 살길 바란다'라는 작은 기도로 접어 둡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남겨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완전히 놓아버리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운 마음만 그대로 남겨두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당신을 마주친다면,
고운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한 대 하는 시간

앤티크 그릇 수집가 김지연



앤티크 그릇 수집가 김지연 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릇을 모아 왔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그릇 수집에 몰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그릇은 평범한 일상을 채우는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이토록 아름다운 앤티크 그릇

한국 무용을 전공한 김지연 씨는 대학 때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단체 율동인 매스 게임(Mass game)에 참여했었다.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큰 행사였기에 외국에 나가서 연습하거나 직접 공연할 기회도 많았다.

“친구들과 외국에 나가면 친구들은 대부분 화장품과 옷을 사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그릇을 보러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릇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 눈에는 그릇이 무엇보다 예뻐 보였거든요. 스물다섯,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어머니가 오래된 그릇을 정말 많이 소장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취향이 같다 보니까 함께 그릇을 보러 다니면서 사 모으기 시작했죠.”

남편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온 가족이 미국에서 5년간 거주했던 적이 있었다. 주말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다양한 그릇을 만났고,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앤티크샵에 들러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한창 애들을 키우는 시기라 그릇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모두 구매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세트로 살 수는 없고, 단품으로 하나씩 사 모으면서 나름의 희열을 느꼈어요. 못 사는 그릇은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기약했죠. 그 시절에는 수집하는 데 열정을 쏟기보다는, 안목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김지연 씨는 보석 사업을 시작했다.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외국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졌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더 많은 앤틱 그릇의 판매처를 알게 되었다. 사업은 나날이 잘 풀렸고, 돈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원하던 그릇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릇 읽어주는 여자

“어느 정도 그릇을 모으고 나서는 스스로 그릇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2013년 썸인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릇 읽어주는 여자’라고 주로 그릇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죠. 그릇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릇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인문학까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요.”

그릇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도자기에 새겨진 패턴과 무늬, 그림까지 파악해야 했다. 현지 박물관에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원서를 구입해 직접 번역해 가며 공부했다. 그릇은 알면 알수록 더 넓은 세상이었고,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는 역사의 보고였다. 그녀의 블로그는 앤틱 그릇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웃을 맺을 만큼 많은 사진과 정보로 가득했다.

“코로나 때 보석 사업이 휘청거렸어요. 하루는 지인들을 불러서 차를 대접했는데, 티 클래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서, 그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롱 드 화

려’라는 티 클래스를 시작했어요.”

티 클래스는 기초반, 심화반, 마스터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기초반은 차에 대한 기초 지식을 듣는 과정으로 차의 종류, 차를 우리는 방법, 차 구매 시 선택의 기준 등 기본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수업이다. 심화반은 차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녹차, 홍차, 청차, 흑차, 백차, 황차 6대 차를 다룬다. 마스터반에서는 그녀가 수집한 그릇을 체험하고 만지며 인문학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녀는 중국의 차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과 일본의 차를 공부하며 다예차와 평사차, 국제티소를 리에협회의 티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며 차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차 수업을 할 때는 수강생들에게 좋은 차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필요한 차가 있으면 일본, 중국, 대만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녀오죠. 보석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것은 외국에 인맥을 잘 만들었던 일 같아요. 아는 사람을 통해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어서 수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를 지탱하는 즐거움, 덕업일치

그릇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앤틱 그릇을 수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본인의 취향을 모르던 시절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싼 가격에 그릇을 사곤 했다. 그릇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릇으로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녀에겐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릇이야 쓸 것만 있으면 되지 왜 모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릇을 전시해 두려고 모았던 것은 아니

예요. 전 대부분의 그릇을 사용합니다. 집에 지인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대접하고 있어요. 초대 받은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만 봐도 즐겁거든요.”

애지중지 아끼면서 바라만 보는 그릇이 아니기에, 그녀에게 그릇은 수집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그릇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기쁨이자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한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마주 앉으면 상대

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 거기에 그릇이 가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사람들과 더 풍성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참 편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마실 때 향기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침착하게 다스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스몰 럭셔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차마시는 행위 자체를 가치로 생각해요. 일상에서 내가 나에게 주는 우아함 같은 거죠. 누구라도 저처럼 이런 행복한 시간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인생이 조금은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
향기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문학의 향기>는 매호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에세이 등으로 채워집니다.
살아있는 감수성과 힘 있는 필력을 가진 작가들이 펼치는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수 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

글. 고옥란(려원) 일러스트. 조주홍



설치예술가 코르넬리아 콘라트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소원들을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물체인 돌맹이와 연결 지은 돌탑, 돌무지에 매혹되어 '소원 무지(piles of wishes)'라는 작품을 제작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이들이 저마다 돌 하나씩을 더하

면 세상 어디든 돌탑이 생겨난다. 의도하지 않는 설치 미술이다. 누군가의 소원 위로 또 다른 누군가의 소원이 퇴적되고 그렇게 익명의 소원들이 서로 연결된다.

*

사찰 입구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 부근엔 작은 돌탑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다. 오래전 백담사에 갔을 때 백담사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용운 선생의 시비도, 대웅전도 아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석회 동굴의 석순처럼 보이는 오밀조밀한 돌탑들이었다. 개별적인 돌맹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온전한 탑을 이룬다. 돌아서면 어느 돌탑 위에 소원 돌맹이를 얹어두었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비슷비슷한 돌탑들, 거센 바람이 불면 일시에 흐트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하지만 저마다의 소원이 돌과 돌 사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일까, 형체가 없는 소원들이 형상화되어 돌 위에 새겨지길라도 한 것일까? 돌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낯선 이들의 소원과 내 소원이 켜켜이 퇴적된 돌은 더 이상 단순한 돌맹이가 아니라 소원들의 무덤이다. 그러나 이미 죽은 소원이 아니라 언제든 소원을 빌었던 이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기에 살아있는 소원들의 무덤이다.

**

유년의 기억 속, 쪽 진 머리에 정갈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커다란 나무 아래 정화수를 떠놓고 끝없이 무언가를 빌고 있었다. “어찌 되든, 어떻게든...”으로 시작되던 주술 같은 그녀의 염원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늘 하늘을 향해 있었다. 아직 어둠의 커튼이 걷히기 전, 나무 아래 서 있는 어슴푸레한 형체는 거대한 돌탑처럼 보였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은 돌탑처럼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던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은 모두 이루어졌을까? 겨울의 초입, 살얼음이 낀 마당에서 넘어지신 뒤 방안에 유폐된 할머니, 집안의 새벽을 열던 돌탑 하나가 방안에 길게 드러누워 있었다. 주술 같은 기도에도 처음으로 당신을 위한 기도가 추가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



다. ‘어찌 되든, 어떻게든 추하지 않은 임종’을 바라셨겠지만 와불처럼 누워계신 기간은 꽤 오랫동안이었다.

익명의 사람들이 세워둔 돌탑 앞에서 유년 시절, 할머니의 기원을 떠올린다. 할머니의 바람은 나무를 한 바퀴 돌고 돌아 세상의 모든 돌탑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을까? 할머니의 임종은 평온하고 고요하였다. 커켜이 쌓은 돌탑 위 작은 돌 하나가 사라져도 또 다른 누군가의 염원이 담긴 돌 하나가 새로 얹힌다. 돌탑은 소원들의 저장고다. 저마다 돌 하나씩 들고 대지에 드러누운 이를 추모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걸었음 신석기인들을 생각한다. 들짐승으로부터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함이든 애도와 추모의 행위든 죽은 이의 몸 위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돌들은 너머의 세계에서 안녕을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으리라.

어린 시절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온 “어찌 되든, 어떻게든....”으로 시작되던 주술 같은 바람들이 시간을 거슬러 환청처럼 가슴에 파고들 때가 있다. 살아오면서 나는 할머니처럼 간절함을 품은 적이 있었는가? 나의 기도는 짧고 얇고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욕심은 길고 두껍고 철근처럼 무거웠다. 돌아보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간절함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돌탑에 닿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스스로 정해놓은 금지의 선과 틀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내 인생의 금지 목록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다. 규격화된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이분법,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과 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두려움, 끝없는 의심과 회의가 인생의 금지 목록을 양산한다.

로마시인 호라티우스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네 몫의 햇빛을 뜯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다. 인생의 어둠이 내리기 전, 주어진 햇빛을 뜯는 일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파스칼 메르시아는 ‘지금’과 ‘여기’에만 확신을 갖는 행위는 ‘지금의 자기’가 아닌 ‘누구’ 또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



하는 불합리한 폭력이라고 말한다. 호라티우스의 ‘지금, 여기’와 파스칼 메르시아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을 향한 모험 사이,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 여기를 과감히 벗어나지도 못한다. 본래 그곳에 있었던 유행 지난 불박이장처럼, 본래 그곳에 있었던 빛 바란 벽지처럼, 본래 그곳에 있었던 낡은 담처럼 웅크린 나는 지금은 아닌, 나는 아닌, 여기는 아닌 삶을 꿈꾸며 단지 견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문득 내 표정에서 슬픔도 기쁨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슬픔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기쁨을 절제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슬픔도 기쁨도 아닌 어정쩡한 중립의 표정을 짓고 살고 있었나 보다. 인생의 정점을 이미 비껴간 듯싶지만 그래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 사회가 금지한 모든 것이 아닌 스스로가 정한 금지 목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진정한 소망이 금지의 선을 뛰어넘고, 규격화된 틀을 바수어 버릴 때 나의 간절함은 비로소 돌 위에 얹어도 좋을 깊이와 넓이와 무게의 합당함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돌탑 위로 소원들이 눈처럼 쌓인다. 익명의 소원들이 손을 내밀어 서로를 환대한다.



★ 작가 PROFILE: 고육란(러원)
제14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필부문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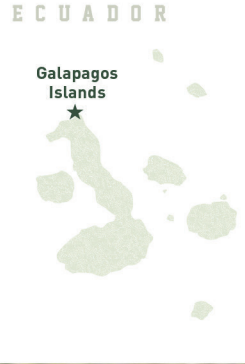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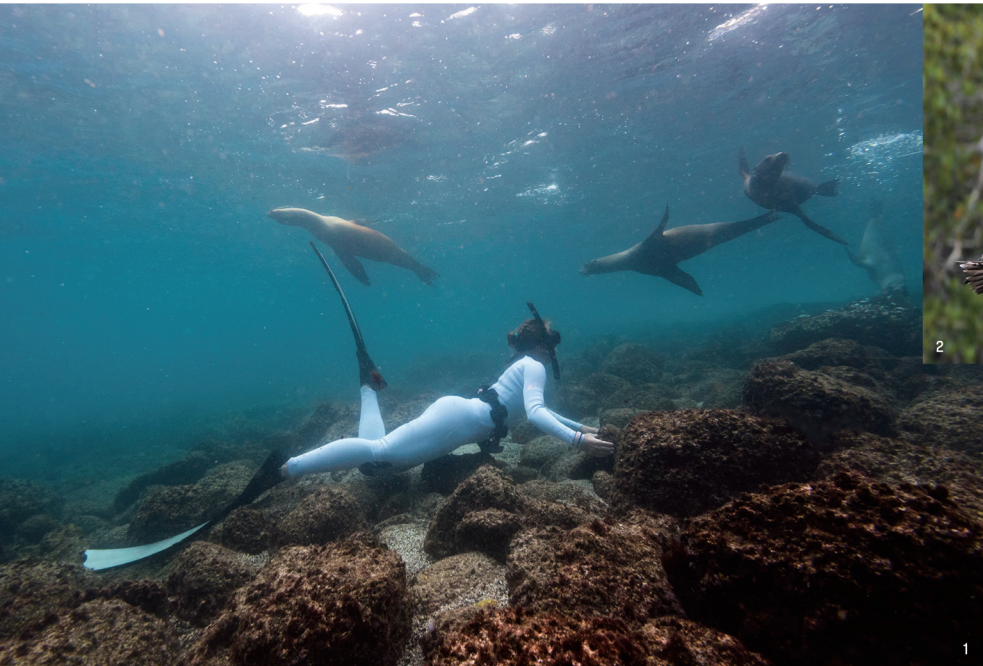


Galapagos, Ecuador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 — 갈라파고스, 에콰도르

여행작가로서 '갈라파고스'는 손에 꼽는 여행지다.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섬이기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이 펼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인간과 동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존하는 곳. 100개 국을 훌쩍 넘게 여행했음에도 지구상에서 '지상낙원'이란 표현을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곳은 오직 갈라파고스라 생각한다.

글/사진 태원준 [여행작가]



1. 바다사자 무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스노클링을 즐기는 여자.
2. 푸른발부비새(푸른발얼간이새)는 짧은 다리와 커다란 발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만, 물에서는 충알처럼 빠르다.
3. 갈라파고스망거북은 지구상 거북 중 몸집이 가장 크고 오래산다.
4. 갈라파고스에서만 발견되는 바다이구아나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화론의 역사가 숨 쉬는 섬

학창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갈라파고스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이는 흔치 않다. 갈라파고스는 중남미 대륙,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어 비행기를 타도 2시간이나 걸리는 외딴섬이다. 엄밀히 따지면 1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군도라는 표현이 옳다. 이곳이 우리의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세를 치르게 된 건 '찰스 다윈'의 공이 절대적이다. 그는 19세기 초반, 섬에 들어와 연구를 하던 중 부리의 모양이 제각각인 모든 새가 똑같이 '핀치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혼란에 빠진다. 이후 추적관찰을 통해 땅에서 벌레 등을 쪼아먹는 핀치는 부리가 뭉툭하며 나

무의 열매 안쪽을 쪼아먹는 핀치의 부리는 뾰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토대로 '생물은 주변 환경에 의해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가설을 세운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유명한 '진화론'의 시작이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갈라파고스는 세계적인 자연 다큐멘터리 채널의 단골 무대가 되었고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했으니 섬 곳곳에 다윈의 이름을 딴 단체나 거리가 있는 건 타당한 일이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발을 디딘 지는 200여 년이 지났으나 섬에선 여전히 그가 보았던 풍경을 볼 수 있다. 다윈의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생명체들이 문자 그대로 지천으로 널려있다. 하늘엔 갈라파고스를 벗어나는 순간 관찰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군함조나 푸른발부비 등의 희귀새가 비행하고 땅에는 갈라파고

스망거북이나 바다이구아나와 같이 오직 이 섬에만 존재하는 동물이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 그 밖에도 수천 종의 동식물이 뒤엉켜 살아가 어디에 시선을 돌려도 낯선 생명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갈라파고스 군도가 '지붕 없는 자연사박물관'이라 불리는 이유다.

인간과 동물의 놀라운 공존

개인적으로 지독할 만큼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갈라파고스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서만은 아니다. 동물이야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중남미의 열대 우림에서도 원 없이 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갈라파고스의 동물 대다수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가

에 수백 마리씩 널브러져 있는 물개도, 인도 위로 기어다니는 각종 이구아나도 사람을 경계하거나 피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심지어 날개 달린 새 역시 인기척에 놀라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 우리가 피해 다녀야 할 판이다. 선착장 입구나 통로를 가로막고 '꿀잠'을 자고 있는 물개에게 뺨하고 소리를 질러봐야 알아서 비켜 가라는 듯 졸린 눈만 꿈뻑거린다. 해가 중천에 뜨면 바다로 해초 사냥에 나섰던 바다이구아나가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일광욕을 하겠다며 건물 앞을 점거한다. 실제로 이들은 일광욕을 통해 체온을 높인다. 그뿐인가? 어시장에선 커다란 펠리컨이나 바다새들이 생선 대가리라도 던져달라며 시위를 한다. 대범한 놈들은 상인 이 한눈을 판 틈을 노려 생선을 훔쳐 달아나기

도 한다. 갈라파고스에서만큼은 최상위 포식자인 ‘두려운’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장면엔 사실 아름다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자 수많은 희귀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다보니 에콰도르 정부는 특별법을 지정하여 섬을 과할 정도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환경 보존을 명목으로 외국인 여행자는 200달러에 달하는 입도비를 내야 하며 길

고 긴 방역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섬 내에선 채집, 수렵, 낚시 등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결정적으로 그 어떤 여행자도 동물에게 손댈 수 없다. 감시자에 의해 해당 행위 발각시 많게는 수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귀엽다고 물개 한 번 쓰다듬었다가 수천만 원이 날아가거나 쇠고랑을 찔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노력 덕에 절대다수의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자신



1. 바다사자가 상인에게 생선을 달라고 애교를 부리며 구걸하는 중이다.
2.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사자 무리를 촬영하는 관광객.
3. 갈라파고스에서는 카약,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4. 해질녘 갈라파고스는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을 만지거나 해친 적이 한 적이 없으니 인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물개가 이 구아나와 부대끼듯, 펠리컨이 거북을 바라보듯 우리도 섬에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해 인간과 동물이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간다. 바다새 곁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각종 동물 사이로 산책하는 게 흔한 일상인 곳이 바로 갈라파고스다.

자연 풍광마저 환상

동물 이야기에 무게중심을 두느라 깜박할 뻔했다. 갈라파고스는 지리상 매우 고립된 섬이라 태곳적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다. 그 덕에 전체적인 풍광도 ‘환상적’이란 표현이 딱 맞다. 섬 안쪽의 마을을 지나 바다에 닿으면 비현실적으로 푸른 물결이 고운 백사장을 끼안는다. 쉽게 보기 힘든 맹그로브숲도 해변에 신비감을 더해주고 근사한 기암괴석도 그림의 배경이 된다. 오랜 시간 개발이라는 이름에서 자유로웠던 까닭에 이름없는 작은 해변조차 풍경적으로 세계적인 해변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호텔이나 리조트가 쪽빛 바다를 가리는 일이 없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마다 등장하는 초대형 선인장 나무도 갈라파고스만의 명물이다. 선인장이 천적을 피해 위로 향하다 보니 결국 나무가 되었다. 역시 진화론의 증거이며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모습에 절로 눈이 간다. 공항이 있는 두 섬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무인도라 제한적인 보트 투어를 통해 일부를 둘러볼 수 있다. 숨겨진 해변에서 잠시 여유를 부릴



5. 산크리스토팔 섬의 암반층인 레온 도르미도(Leon Dormido), 많은 여행객이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즐긴다.
6. 사람보다 키가 큰 초대형 선인장도 갈라파고스의 명물이다.

수도 있고 화산 지대나 갈라파고스땅거북 보호 구역을 탐험할 수도 있다. 중간중간 스노클링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물속으로 뛰어들 때마다 황금빛 가오리와 육중한 바다거북, 진한 원색의 열대어들이 함께 장단을 맞춘다. 호기심 많은 꼬마 물개가 다가와 귀여운 얼굴을 들이밀 때면, 이게 꿈인가 싶다. 운이 좋다면 돌고래 떼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향해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판에 앉아 멍하니 주변의 살아있는 자연을 눈에 가득 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러니 갈라파고스를 찾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행복이 샘솟을 수밖에. 동물과 인간이 완벽하게 공존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로운 대자연까지 겸비한 곳. 여기저기 남발되는 ‘지상낙원’이란 수식어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갈라파고스뿐이 아닐까?

파카마라 커피의 원산지

커피와 갈등으로 만들어진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엘살바도르는 커피의 나라다. 살바도르(Salvador)는 '구세주(savior)'를 의미하는 라틴어 'salvator'에서 왔다. 재미있는 사실은 엘살바도르를 고난에 빠트린 것도, 엘살바도르를 구제한 것도 사람이 아니라 커피라는 것이다. 커피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아주 낯설게 남아 있을 나라가 바로 엘살바도르다.

글. 이길상[커피인문학자, 교육학박사] 일러스트. 마시

1853년 커피 수출국의 대열에 합류

18세기 후반에 이웃 과테말라로부터 커피가 유입된 엘살바도르. 초기에는 국내 소비용으로 커피를 생산했고, 주 소비자는 스페인계 상류층과 독일 등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었다. 커피 수출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들어서였다. 1821년에 독립한 엘살바도르는 마침 1830년대에 시작된 제1차 커피 붐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커피 생산을 늘리기 위해 1846년에 정부는 커피농장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커피 농장 노동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법까지 제정했다. 엘살바도르가 본격적인 커피 수출국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1853년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덕분이었다. 1855



년에는 엘살바도르 커피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랄도 바리오스(Gerardo Barrios)의 통치하에서 커피 농부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획기적인 정책이 취해졌고, 독일에서 엘살바도르 커피를 수입하기 시작하는 등 커피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당시 엘살바도르 원주민 사회는 공동 경작을 전통으로 여겨왔고, 토지에 대한 개별 재산권을 소유한 농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1881년과 1882년에 실시된 자유주의 개혁으로 토지 사유화가 시작되었고, 비극의 문이 열렸다. 농지 소유권 대부분이 국가와 대형 농장주들에게 넘어갔다.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커피, 설탕, 면화 농장에서 노예와 같은 임금노동자로 전락했다. 인구의 절반이 토지 소유권을 잃고 노예가 된 것이었다. 1895년에는 토마스 레갈라도(Tomas Regalado)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본인의 가족에게 커피농장을 나누어 주는 등 본격적인 친재벌, 반노동자 정책을 이어갔다. 레갈라도 이후 31년 동안 농장 재벌들이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고, 커피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면서 부를 축적했다.

리 마틴자 대학살과 커피 품질의 향상

엘살바도르 커피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데 기여한 것은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성장한 커피 기업 힐스브라더스였다. 커피 판매에서 처음으로 시음 행사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매장에서 커피

원두 메이커를 보고 구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직접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셔보는 시음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커피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엘살바도르 커피가 가진 균형감 있고, 달콤하고, 그윽한 산미가 미국 커피 애호가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엘살바도르 커피가 미국 시장에서 환영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188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지속된 제2차 커피 붐을 통해 엘살바도르 커피는 약진했다. 미국인들이 찾는 고급 커피, 마일드 커피의 하나가 엘살바도르 커피였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커피 소비를 위축시켰고, 커피 의존도가 높았던 엘살바도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커피는 팔리지 않고 노동자들은 곤궁했다. 노동자들이 선택한 것은 저항이었다. 1932년 수만 명의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이 서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였고, 그 결과 3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었다. 이른바 ‘라 마탄자’, 대학살이었다. 경제 대공황 이후 엘리트 계층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커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70년대 들어서는 세계 5위의 커피 생산국, 세계 4위의 커피 수출국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나 커피 재벌은 커피농장 노동자나 농민의 빈곤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결국 농장을 버리고 게릴라의 길을 선택하는 농민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농민 출신 게릴라들과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군 사이의 반목과 갈등으로 1979년부터 1992년까지 13년간 내전 상태에 빠졌다. 노동자가 사라진 커피 농장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2년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을 250헥타르 이내로 제한하는 등 소규모 커피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소규모 농가 중심의 커피산업은 점차 발전하였고, 현재는 엘살바도르 커피의 95%가 20헥타르 미만의 농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커피 생산 농가와 정부의 협력으로 생산되는 커피의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엘살바도르 커피의 최대 장점이 되었다. 커피로 위기를 겪었던 엘살바도르가 커피로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찾은 것이다.

빈 속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나라

엘살바도르는 현재 세계 20대 커피 생산국에 포함된다. 생산량보다 중요한 것은 고급 커피라는 이미지다. 엘살바도르의 토양은 비옥하고, 대부분의 커피 농장은 1,200~1,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좋은 토양과 알맞은 기후는 균형 잡힌 산미와 밝은 맛을 지닌 우수한 커피의 생산을 도와준다. 엘살바도르는 생산지 높이에 따라 커피의 등급을 분류하는 나라다. 크게 Central Standard, High Grown, Strictly High Grown(SHG)으로 분류한다. SHG 커피는 달콤한 감귤

향과 버터 같은 후미를 특징으로 하는 최고 수준의 커피다. 이 나라에서 재배하는 커피 중 가장 많은 품종은 버번종이다. 버번종 커피는 그루당 생산량은 적지만 초콜릿 단맛과 풍부한 후미가 좋아 서국제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물론 엘살바도르 커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파카마라종이다. 살바도르커피연구소(SICR)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생두가 크고 깊은 맛이 난다.

유명한 카페로는 수도 산살바도르에 있는 ‘4 Monkey Coffee Roasters’를 빼놓을 수 없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과 3명의 친구(합해서 4 원숭이)가 창업한 카페로 잘 알려져 있다.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오래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Viva Espresso, 아이스커피를 마실 수 있는 Biscuit Factory 등도 유명하다. 고유한 커피 음료로는 강하고 진한 엘살바도르식 에스프레소 Cafétito, 커피와 스팀드 밀크의 결합 음료 Café con Leche 등이 있다. 우유와 함께 제공되는 작은 에스프레소인 Café Cortado는 사교 모임에서 많이 마신다.

유럽이나 미국인들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빈속에 커피를 마시지는 않는 편이다. 코미다(comida)라는 식사 시간에 마시는 것이 보통이며, 이런 커피를 Café Comida라고 부른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수박, 멜론, 파인애플 등으로 만드는 과일 음료 Agua Fresca를 먼저 마시기도 한다. 럼, 커피, 물을 합한 음료로 파티에서 많이 마시는 Café Rhum도 있다. 최근에 활발해진 스페셜티 커피 붐은 엘살바도르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시작된 엘살바도르 Cup of Excellence 이후 세계의 커피 애호가들은 엘살바도르 커피를 고급 커피의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 엘리트층과 노동자들이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구축한 협력 체제는 엘살바도르 커피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밝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입동, 감나무에
까치밥 남겨두는
조선의 마음



“찬 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며” 김남주 시인은 <옛 마을을 지나며>라는 시에서 이즈음의 정경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바로 겨울이 다가왔다는 손짓이다. 무서리 내리고, 마당 가의 감나무 끝엔 까치를 위해 몇 개를 남겨두어 홀로 외로운 때가 입동이다.

글.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 발행인]

♣ 김장으로 1년을 든든하게

“이제부터는 참으로 겨울이라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데, 입동에 중대한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지는 시골농가에서 보리 가는 일이니 보리는 대개 입동 전에 갈아야 수확이 많다고 한다. 금년같이 추위가 일찍 오는 해는 더욱더 일찍 갈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경향을 막론하고 겨울 식량으로 중대한 짐장(김장)도 입동 전후에 하여야만 되는 것이니 이제 경성 시내의 진장(김장) 시세를 소개하면 배차 백통에 오 원, 무 한 접에 일원 오십 전, 고추는 오승한 말에 칠십 전 가량이오다”

이는 동아일보 1921년 11월 8일 기사로, 보리갈이와 김장이 입동의 중대한 행사라고 보도한다. 입동은 24절기의 열 아홉째이며, 이날부터 ‘겨울(冬)에 들어선다(立)’라는 뜻에서 입동이라 부른다. 이때쯤이면 가을걷이도 끝나 바쁜 일손을 털고 한숨 돌리는 시기로, 겨울 채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겨울을 앞두고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인데 농가에서는 서리 피해를 막고 알이 짙은 배추를 얻으려고 배추를 묶어주며, 서리에 약한 무는 뽑아 구덩이를 파고 저장하게 된다.

입동 전후에 가장 큰 일은 역시 김장이다. 겨울 준비로 이보다 큰일은 없는데 이때를 놓치면 김치의 상큼한 맛이 줄어든다. 큰집 김장은 몇백 포기씩 담는 것이 예사여서 친척이나 이웃이 함께 했다. 우물가나 냇가에서 부녀자들이 무, 배추 씻는 풍경이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것도 우리 겨레가 자랑하는 더불어 살기의 예일 것이다. 김장과 함께 메주를 쑨는 것도 큰일 가운데 하나다.



♣ 감나무에 까치밥은 남기셨죠?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라는 속담이 있다. 보리씨 뿌리는 때를 강조한 속담인데 일손이 모자라서 흙먼지만 날리는 수준일지라도 반드시 씨뿌리기는 입동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보리씨를 가을에 뿌려 겨우내 땅속에서 충분한 성숙기를 가진다. 그렇게 겨울 추위를 견딘 보리는 양 기운이 넘쳐나는 여름철에 음 기운을 보충해 준다. 보리에 관한 속담으로는 ‘입동 전에 보리는 묻어라.’, ‘입동 전 송곳 보리다.’, ‘입동 전 가위 보리다.’가 있다. ‘송곳 보리’는 보리가 입동 전에 송곳 길이로 자라야 한다는 뜻이고, ‘가위 보리’는 보리 잎 두 개가 돌아난 때의 모양이 가위 모양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입동 때 까치밥 날짐승들을 위해 감나무에 감 몇 개는 남겨두는 것이 조선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 겨레에겐 ‘치계미(雉鷄米)’라고 하는 미풍양속도 있었다. 여러 지역의 향약(鄕約)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계절별로 마을에서 자발적인 양로 잔치를 벌였는데, 특히 입동(立冬), 동지(冬至), 선달그믐날에 나이가 드신 노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을 치계미라 하였다. 본래 치계미란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을 뜻하는 것인데, 마치 마을의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온 풍속인 듯하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해에 한 차례 이상은 치계미를 위해 금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랑탕’ 잔치로 대신했다. 입동 무렵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 이때 도랑을 파면 누렇게 살이 찐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 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을 도랑탕 잔치라고 했다.

♣ 보리잎이 가위처럼 나와야 풍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음력 10월부터 정월까지의 풍속으로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임금에게 우유를 만들어 바치고, 기로소(耆老所)에서도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겨울철 궁중의 양로(養老) 풍속이 민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입동을 즈음하여 점치는 풍속이 여러 지역에 전해오는 데, 이를 ‘입동보기’라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입춘 때 보리를 뽑아 뿌리가 세 개이면 보리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입동 때는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친다.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두 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다.

또 이때는 추수를 무사히 끝내게 해준 데 대해 감사의 고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음력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찌서 토광(널빤지를 깔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둔 광), 외양간, 터줏단지(집터를 지키고 관장하는 터주신을 담은 그릇), 법씨 섬(법씨를 보관해 둔 가마니)에 가져다 놓았다가 먹고, 농사에 애쓴 소에게도 가져다주며, 이웃집과도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확의 고마움과 집안이 무사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입동은 수능 시험 날과 겹치기 일쑤다. 입시 한파라 하여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온 나라가 꿈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되어 온 세상에 냉기로 가득 차게 된 결과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송강 정철은 다음처럼 〈한밤중 산속의 절에서(山寺夜吟: 산사야음)〉라는 노래를 했다.

蕭蕭落木聲 쓸쓸히 나뭇잎 지는 소리를

錯認爲疎雨 성근 빗소리로 잘못 알고서

呼僧出門看 동자승 불러 밖에 나가보라 했더니

月掛溪南樹 시내 남쪽 나무에 달 걸렸네요.

나뭇잎 지는 소리를 빗소리로 착각하여 동자승에게 나가보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본 동자승은 “시내 남쪽 나무에 달이 걸렸네요”라고 대답한다. 동자승의 말이 참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가을은 깊어 간다. 그리고 입동이 지나면 겨울이 성큼 다가선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가? 바쁜 세월을 살고 있지만 붉게 물든 산세도 돌아보고, 고통 속에 떠는 주변도 돌아볼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입동 전 보리 잎을 보고 점을 치는 ‘입동보기’



도랑탕(추어탕) 잔치_그림 이무성 작가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밤인사-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트호프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봄 꿈-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닮은 예술가 슈베르트와 피터 브뤼겔, 아르침볼도

음악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제철 음식처럼 그 계절이 오면 잊지 않고 들어야 할
필청곡이 있다. 겨울에는 역시 슈베르트다. 특히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는 스산한 겨울 바람이
연상되는 곡이다. 음악에 슈베르트가 있다면 그림으로 겨울을 표현한 화가로는
피터 브뤼겔과 아르침볼도를 꼽을 수 있다.

글. 조현영[클래식 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겨울 나그네와 슬픔의 선율



프란츠 슈베르트! 외모로 봐선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말을 더듬어서
항상 천천히 얘기하고, 가진 것도 없는 데다 현실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
봐도 없는 수줍고 순수한 청년이다. 하지만 친구들에겐 완벽한 슈베르
트였다. 조용하지만 가끔 한 마디 톡하고 던지는 말엔 언제나 유머가 있었

다. 슈베르트의 친구들은 세상 기준으로 불량하고 세속적이었지만, 슈베르트를 대할 때면
마냥 순수해졌다. 그에게 충성을 바쳤던 슈베르티아데(슈베르트 애호가)가 없었다면 그의 음
악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와 동시대의 시인 빌헬름 뮐
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전부 24곡의 가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둡고 암울
한 분위기다. 그의 암울한 분위기는 노란색 바탕에 덧칠한 검은색에 가깝다. 간혹 바닥의 노랑
이 얼굴을 내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검다. 연가곡이란 24곡이 한 곡처럼 쉬지 않고 계속 이
어져서 연달아 부르는 가곡인데, 전곡 연주 시간이 90분 정도라 집중해서 3번 정도 듣다 보면
밤이 금방 지나간다. 고즈넉한 겨울밤에 듣기 참 좋은 곡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곡은 첫 번째
곡 <밤인사(구테 나흐트)>와 다섯 번째 곡 <보리수(린덴바움)>이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
명해서 단독으로도 불리지만, 겨울 나그네는 뭐니 뭐니 해도 24곡을 통째로 모두 연달아 들어
야 제맛이다. 이 곡은 우리나라에선 낭만적인 번역으로 더욱 인기를 얻었다. 독어로 '빈터 라
이제(Winterreise)'는 엄밀하게는 '겨울 여행'이 맞지만 '겨울 나그네'가 됐다. 겨울 여행보다
겨울 나그네가 훨씬 운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
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바로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느껴진다. <겨울 나그네> 음악의 온도는 언
제나 영하다.

<겨울 나그네>는 1827년 슈베르트의 나이 30세 때 작곡한 작품인데, 그해 슈베르트의 멘토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다. 사랑이 끝나고 떠난 사람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뿐만 아니라 베토벤도
함께였다. 그는 1822년과 1823년 사이에 매독 판정을 받고 괴로워했다. 1824년 친
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한마디로 난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
참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어. 다시는 완전히 건강해질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절망한 나
머지 모든 일을 망치고 있는 한 인간을 상상해 보라고!" <겨울 나그네>를 작곡했던 시기를 비추
어 보면 슈베르트의 마음은 슬픔과 좌절에 쌓여 괴로웠을 것이다. 이 곡이 혹시 자신을 위한 애
도곡이었을까? 다음 해인 1828년 그는 31살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다. <겨울 나그네>는 음
울하고 어두운 정서가 가득한 비극적인 노래집이다. 뮐러의 시에 음악을 입힌 것이지만 시집

의 순서와 음악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겨울 나그네>는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으로, 첫 곡 <밤인사>는 사랑하는 여인의 집 앞에서 헤어지는 청년의 모습부터 조명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쉬워하는 청년.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불쌍한 청년이 여기서부터 노래를 읊조린다. 그 시절 슈베르트는 가난에 시달리며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고, <겨울 나그네>를 완성하고는 천국으로 가버렸다. 연인을 잃은 젊은이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안녕히’라고 한 마디 남기며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난다. 가사가 너무 자조적이고 슬프다. 누군가는 이 곡에 대해 “거의 노래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겨울을 사랑한 브뤼겔과 아르침볼도

브뤼겔은 16세기 네덜란드 북쪽에서 태어난 플랑드르 화가인데 그의 작품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림 한 점만으로도 그의 품성을 살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민속적인 향기가 풍긴다. 농민의 생활을 많이 그린 걸로 보서는 화가 자신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북유럽 자연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이탈리아로 유학하며 알프스의 풍경에 매료된다. 귀국 후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에 감동을 받고 최초의 농민 화가로 불리며 작품을 남겼다. 당시 네덜란드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반감을 갖은 종교 개혁가들이 대거 등장했고, 신교의 교세가 확장되던 시기라서 교회의 대형 제단화나 성화를 그리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느낀 풍경들을 그린 후 직접 작품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브뤼겔은 죽기 전 아내에게 자신의 작품을 모두 불태우라고 말했다는데 아마도 그림에 담긴 자신의 신념이 당시 정치가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부인과 자식이 화를 입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작품 <사냥꾼들의 귀환>에서는 사방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눈이 쌓여 얼음이 언 저수지 위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냥으로 피곤했을 몸을 한 걸음이라도 빨리 재촉해 군불을 때고 있는 따뜻한 집에 가서 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진다. 특별히 대단한 주제가 아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그림을 보고 상상이 가능한 감정들을 담았다.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은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예술 작품이 아닐까? 브뤼겔의 아들 역시 화가로 활동했기에 우리가 아는 브뤼겔을 ‘대(大) 브뤼겔’로 부르기도 한다.

플랑드르에 브뤼겔이 있다면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풍자와 해학의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활동했다. 그는 1527년부터 1593년까지 활동했는데,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작품의



독창성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과일이나 꽃, 동물이나 여러 사물 등을 이리저리 잘 조합해서 만든 작품은 앞, 뒤, 아래, 위로 돌려보며 봐도 재미난 부분이 눈에 띈다. 그의 그림에는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다. 아르침볼도의 아버지 역시 화가여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림과 더불어 책도 좋아해서 닥치는 대로 여러 분야의 책을 탐독했다. 시와 철학 고전문헌에도 관심이 깊었던 그는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림 실력까지 뛰어나서 일찌감치 페르디난트 1세 왕의 눈에 띈다. 그 뒤로 3대에 걸쳐 왕위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궁정화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아르침볼도는 1562년부터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의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페르디난트 1세의 아들 막시밀리안 2세와 손자 루돌프 2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화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전쟁에 패하면서 다수의 작품이 전리품으로 뺏겨 현재 유럽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막시밀리안 2세의 명령으로 그리게 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작과 땅, 불, 물, 공기로 구성된 4원소 연작이 유명하다. 각 계절을 상징하는 과일과 식물의 배치가 정교하고, 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작품 안에서 그의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는 걸 보면 그는 인간의 순수성을 가장 잘 자극하는 화가인 듯하다. 사계절이 변화하듯 인간도 세월 따라 변해간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계절을 만끽해 보자.



아르침볼도_겨울

피터 브뤼겔_사냥꾼들의 귀환



천년의 이야기 따라 걷는 ‘나주읍성 고살길’

조선시대 나주는 ‘작은 한양’이라 불리며 고려 8목, 조선 20목에 속할 정도로 전라도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구한말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들더니 일제강점기엔 나주읍성과 사대문마저 허물어졌다. 천만다행, 현대에 와서 읍성과 사대문이 복원되었다. 나주읍성을 잇는 고살길을 따라 천년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본다.

글. 임운석[여행작가] 사진. 임운석, 나주시, 한국관광공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라남도 제일의 도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인구 11만 남짓한 도시다. 하지만 120여 년 전만 해도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다. 나주는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전라도의 중심지였다.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全羅道)라 이름 붙였으니, 나주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주읍성 고살길은 ‘서부길’과 ‘동부길’로 나뉜다. 서부길은 조선시대 서부면 구역으로 향리들이 모여 살던 성안 동네이다. 금성관을 시작으로 사대문을 따라 이어진 3km 구간이다. 동부길은 5km 구간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아보는 길이다. 천년의 역사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체험하고 싶다면 자박자박 걷는 서부길이 제격이다. 서부길의 시작은 금성관이다. 금성관은 조선 성종 때 세운 나주목 객사 건물이다. 객사라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나 외국 사신들이 묵어가는 숙박시설쯤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망궐례를 올리는 곳이었다. 객사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가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성관의 규모가 호기롭다.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단층 팔작지붕이다. 칸 간격이 넓고 높이가 높아 정청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 큼지막한 현판이 인상적이다. 힘찬 붓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데 원고 이광사의 글씨라고 한다. 그는 해서, 초서, 전서, 예서에 능통했던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와 함께 최고의 서예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금성관을 중심으로 정3품 이상이 묵는 동익현과 종3품 이하가 묵는 서익현이 자리한다. 후원에는 오랜 세월 금성관과 동고동락하며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온 600년 된 은행나무가 여전히 건재하다. 금성관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출정식을 했고, 명성황후가 시해 때는 유림이 모여 통곡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주군 청사로 사용됐으며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는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 금성관의 규모가 호기롭다.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단층 팔작지붕이다. 칸 간격이 넓고 높이가 높아 정청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 ”

1. 어로 끝에 자리한 금성관.
2. 금성관 내부 전경.
3.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제394호).





솟을대문 사이로 한옥의 멋이 흘러나오는 나주목사내아는 1825년에 지어진 나주목사의 관사였다. ‘거문고 소리에 학이 춤추는 곳’이라 하여 ‘금학헌’이라 한다. 금성관이 기골 장대하다면 내아 금학헌은 아담하다. 건물은 ‘ㄷ’자형으로 앞면이 열려 아늑하다. 마루에 앉아 소담한 이야기꽃을 피우면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지금은 숙박 공간으로 개조해 개방되고 있다. 객실은 나주목사를 지낸 306명의 목사 중에서 특별히 존경받았던 유석증과 김성일의 이름을 땄다. 마당에 오백살 넘은 팽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운치를 더한다. 목사내아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주목문화관이 이웃한다.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챙겨보고 싶다면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다.

3.5km에 이르던 나주읍성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는 왜구의 단골 침략지였다. 고려 때 읍성을 쌓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나주읍성은 조선시대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지금과 같은 석성이 되었다. 둘레가 3.7km에 이르는 나주읍성은 한양도성과 같이 동서남북에 각각 문을 만들고 성 내부에 길을 놓는 등 계획적으로 지었다. 일제강점기에 철거됐다가 현대에 와서 복원됐다. 가장 먼저 복원된 남고문(남문)은 나주도 심부를 가로지르는 대로 끝 지점에 있다. 동점문과 달리 웅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관문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기에 서울 송례문이 연상된다. 역시 작은 한양다운 면모다. 동점문은 무지개처럼 생긴 홍예문식 성문의 바깥에 ‘ㄱ’자 모양의 웅성을 둘러 방어력을 높였다. 서성문은 1894년 7월 1일 동학군이 나주를 점령하기 위해 총진격하다 맞닥뜨린 곳이다. 관군의 저항이 거센 나머지 점령에 실패한 동학농민군 전봉준은 서성문으로 들어가서 당시 나주목사였던 민종렬과 협상을 벌였다. 서성문 뒤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나주향교가 있다. 987년(고려 성종6)에 창건해 1398년(조선 태조 7)에 중수했다. 건물 배치는 한양의 성균관과 같은 앞쪽에 제사 공간을 뒤쪽에 학습공간을 배치하는 전묘후학을 따랐다. 대성전의 규모는 웅장하고 격이 높다. 임진왜란 이후 한양 성균관을 재건할 때 나주향교 대성전을 참고했을 만큼 나주향교는 규모와 건축

양식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벽체에 쓰인 흙이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나주향교에 대한 선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1월이면 나주향교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멋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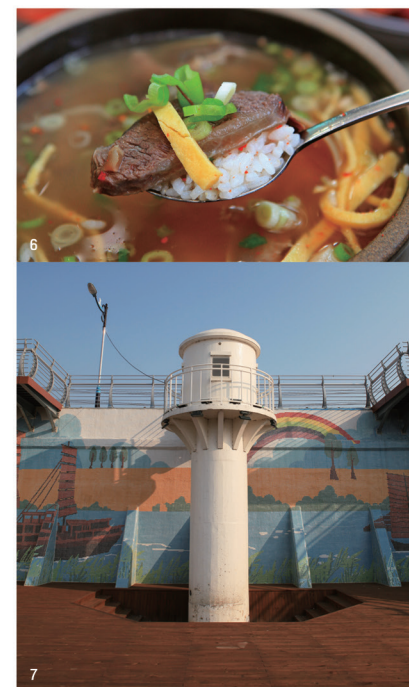
나주 대표 맛집거리, 나주국밥과 흥어거리

곰탕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른 귀한 음식으로 황해도와 해주곰탕, 경상도의 현풍곰탕, 전라도의 나주곰탕이 유명하다. 곰탕은 우족과 소꼬리, 양을 재료로 국물을 오랜 시간 고아낸다. 곰국에 밥을 말아 국밥식으로 낸 것을 곰탕이라 한다. 나주곰탕은 나주 오일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뒤 나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나주곰탕의 특징은 맑은 곰탕 국물과 무, 파, 마늘을 많이 넣어 고기 누린내가 없다는 것. 국물이 맑은 이유는 쇠뼈를 적게 사용하고 쇠고기 양지와 사태 등 좋은 고기를 삶아 육수를 내기 때문이다. 곰탕은 주문과 함께 토렴을 거친 뒤에 계란지단과 대파를 올리고 고기를 푸짐하게 쌓아서 나온다. 한 숟갈 떠먹으면 진한 국물 맛에 금세 빠져든다.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국물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이 일품이다.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와 깍두기의 궁합도 환상적이다.

나주곰탕거리에는 금성관 주변에 조성돼 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하안집과 1960년부터 3대째 맛을 지키고 있는 노안집이 유명하다. 세월을 말해주듯 커다란 가마솥들이 부뚜막에 걸려있고 구수한 곰탕 냄새가 진동한다. 슬쩍 엿본 주방 한편에는 고기 고명과 계란지단, 대파 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나주읍성에서 4km 남짓한 거리에 영산포 흥어거리가 있다. 영산강항포돛배나루터 인근이라 여행자들의 발길 잦다. 영산포 등대, 일본인지주가옥 등 영산포 근대문화유산이 흩어져 있어 먹거리뿐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1. 웅성을 둘러 방어력을 높인 동점문.
2. 이광사가 쓴 금성관의 현판.
3. 금학헌이라 불리는 나주목사내아.
4. 나주향교에 깃든 가을색. @나주시
5. 나주향교의 표지석.
6. 가양지와 사태 부위를 사용하는 나주곰탕.
7. 영산포 등대는 국내에서 유일한 내륙 등대다.



『삼국지』는 후한 말기 한 왕조가 기울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각색되고 재해석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중에서 지략과 지혜의 대명사가 된 인물이 제갈량(諸葛亮, 181~234)이다. 『삼국지』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그의 이름은 대체 불가능한 전설이다.

글. 임성훈[고전독서가]

『삼국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이름을 얻는다



제갈량의 지략과 헌신

조조, 손권 등 대다수 리더는 한 왕조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유비만이 일관성 있게 ‘한 왕조의 중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촉한을 세운 유비가 외친 일종의 정치적 강령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유비의 핵심 전략이었던 제갈량이 함께 다지고 계승했다. 제갈량은 위나라 국력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촉한을 이끌며 5차례나 북벌을 단행했다. ‘헌실적으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촉한은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비록 제갈량의 도전은 실패했고, 촉한도 세워진 지 42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제갈량이 죽은 지 1,800년 가까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지혜의 화신으로, 청렴결백한 신하의 표본으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진 재상으로 칭송받고 있다.

“공명은 와룡(臥龍)입니다. 이 사람은 가서 볼 수는 있어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몸을 굽혀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 진수, 『삼국지』

제갈량에게는 비범한 구석이 있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경전을 줄줄 외우는 데 급급했지만, 그는 큰 흐름과 대강만을 파악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춘추시대의 명재상 관중이나 전국시대의 명장 악의와 견주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친구였지만, 서서는 그를 알아보고 훗날 유비에게 천거한다. 조조에게 쫓겨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유비에게는 지략을 가진 조언자가 필요했다. 유비는 친

히 제갈량의 처소를 세 번이나 찾아갔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위나라, 오나라와 함께 천하를 다투어야 한다는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제안했다.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소.” - 진수, 『삼국지』

제갈량이 유비 진영에 가담한 이듬해,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해 버렸다. 유비가 그나마 몸을 기대고 있던 세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유비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제갈량은 오나라 손권을 설득해 동맹을 맺고 유비와 손권 연합군이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쳤다. 이것이 적벽대전이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와 유장이 다스리던 익주를 얻고, 장로가 다스리던 한중까지 차지한다. 220년, 위나라 조비는 헌제의 양위를 받아 황제가 된다. 다음 해에 제갈량은 유비를 설득해 촉한의 황제가 되도록 했다. 유비가 죽은 뒤에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된 제갈량은 오나라와 화친을 맺고, 촉의 남쪽 지역을 정벌했다. 위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후방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제갈량은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하다가 46세 되던 227년,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리고 위나라로 진군했다. 이후 234년 오장원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5차례 북벌을 시도하면서 한중에 머물렀다.

제갈량의 원칙과 북벌

1차 북벌에서는 남안, 천수, 안정 3군이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에게 호응했지만, 가정 전투에서 마속을 잘못 써 보급로가 끊겨 퇴각했다. 2차 북벌에서는 학소에게 고전하다 시기를 놓쳐 퇴각했다. 추격해 온 왕쌍의 목을 베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3차 북벌에서는 무도군과 음평군을 기습했지만, 겨울이 되어 퇴각했다. 북벌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보급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북벌에는 군량을 나르는 목우를 개발해 사용했다. 하지만 이때도 이엄의 실수로 군량이 부족해 물러났다. 5차 북벌에서는 오장원에서 4개월간 위군과 대치하다가 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제갈량 사후 촉한의 국력은 급속하게 쇠약해지다가 그가 죽은 뒤 29년 만인 263년 멸망했다. 제갈량은 실패한 이상주의자일지도 모르겠다. 그가 공들였던 5차례의 북벌은 모두 실패했다. 촉한은 2대 황제에서 맥이 끊겨 버렸다. 하지만 촉한을 이끌었던 제갈량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후세인들은 ‘제갈량의 이름이 우주까지 드리운다’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그의 재주 때문이 아니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십 때문이 아닐까? 그는 시세의 이로움을 따르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원칙의 리더십을 지킨 인물이었다.

제갈량 리더십의 세 가지 특징

첫째, ‘한 중흥이라는 원칙’
둘째,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셋째, ‘충의라는 원칙’

우리집 식물 겨울나기

베란다 식물 월동 준비

겨울철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 키우는 식물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식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관엽식물은 온도가 떨어지면 실내로 들여놓는 것이 좋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식물도 겨울잠을 잔다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식물의 신진대사가 극도로 낮아져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게 된다. 식물의 대사 작용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양분을 적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온도 체크도 필수다. 식물별로 생육온도를 파악해 우리 집 베란다가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거실로 식물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고 해도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 화분을 넣거나, 바닥과 조금 떨어뜨려 냉기가 직접적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유리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식물을 따뜻한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게 돕는 방법도 있다. 이때 통풍이 잘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다육과 식물은 겨울과 여름에 상대적으로 신진대사가 줄어든다. 다육과인 콩란의 경우, 겨울철 물주는 분무 정도로 가볍게 하고, 5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수선화나 튤립, 캄파눌라 등 구근 식물은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겨울에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휴면상태에 들어간 식물은 잎이 처지거나 떨어지고, 줄기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봄에 새싹을 돋우기 위해 먼저 단련해서는 안 된다.



콩란

실내 월동 vs 베란다 월동

커피나무, 식충식물, 립살리스 등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추위를 많이 타서 되도록 거실에 들여놓는 것이 좋다. 관엽식물인 무늬 바로크 벤자민도 18도에서 25도 사이가 생육하기 좋은 온도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월동을 권장하고, 15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식물을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을 때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 배치한다. 바닥 난방을 사용하는 집에서는 되도록 바닥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는데, 바닥 열로 인해 흙 속이 말라 뿌리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다. 이때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유지해야 잎이 갈변하거나 시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베란다에 그냥 두어야 좋은 식물도 있다. 줄기와 잎이 딱딱하고, 잎이 작은 온대 기후 식물은 베란다에 그대로 둔다. 수국, 제라늄, 유칼립투스, 허브와 같은 온대 기후 식물은 영상 10도 이하의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허브는 1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잘 살아남는데,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병충해가 생길 수 있다. 고사리류도 베란다에 두는 것을 추천하는데, 실내는 건조해서 잎 마름이 생길 수 있어서다. 달빛고사리의 경우, 공중 습도를 70~80%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늬 바로크 벤자민



스텔링플라워 이지윤 대표 Advice

Q. 베란다 월동 식물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A. 베란다에 둔 식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미온수로 물을 줍니다. 환기는 해가 따뜻할 점심때 해 주고, 밤에는 문을 닫아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Q. 건조한 겨울에 습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식물은 50%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는 식물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식물을 모아서 가까이 키우면 잎을 통해 수분을 방출하기 때문에 서로의 수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빛 고사리

불필요한 것과의 이별, 정리

일러스트, 나요



완전무결 vs 천하태평

김동석 [서울동대문구]

난 어릴 때부터 모든 물건은 정해 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몇 방울이라도 튀면 즉시 닦아야 하고, 현관 앞 신발도 한 치의 오차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으면 참지 못한다. 이런 습관은 전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군 장교이셨던 아버지의 혹독한 군기 교육 중 정리 정돈은 기본 중 기본이었다. 한번은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삐딱하게 놓여 있다는 이유로 그날 저녁밥을

끓은 적이 있다. 온 집안 식구가 쓸고 닦는 일은 거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다.

그런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연애 시절엔 몰랐던 아내의 생활 습관이 나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집안에 먼지나 머리칼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도, 신발장의 신발이 뒤죽박죽인 채 널브러져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쓸고 또 닦았다. 우리 둘 만일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문제는 가끔 부모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할 때다. 오시기 전 아무리 청소해 봐야 집에 머물다 보면 아버지의 매의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

한번은 아내에게 청소가 왜 중요하며, 청소를 중요시하게 된 사연 등에 관해 얘기해줬다. 자신은 부모로부터 억압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오히려 내가 청결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던다. 자신도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록 반대 방향이지만 우리 모두 지나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의 지나친 '완전무결', 가풍에서 비롯된 아내의 지나친 '천하태평'.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꽤 오래도록 서로를 꼭 안았다.

남은 구닥다리

윤미화 [부산 사상구]



물건을 자주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샀던 것이 40여년 살림살이에 오죽 많으랴. 옛날 어른들이 쓰던 물건들은 거의 버렸는데도 가끔 기본이 20년 이상 된 물건들이 화제에 오르면 자식들은 으악! 질린다며 과장된 소리를 내기도 했다. 게다가 쓰던 물건이 쌓여 발에 걸리적거리면 자리를 바꾸면서 다음에 쓸 요량으로 창고에 보관해 왔었다. 정리하고 치웠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하는 자식들의 눈빛을 종종 보기도 했다. 어느새 노인으로 분류된 내가 하는 정리는 치운 동 만동으로 보였을 거다. 날을 잡아 아들 사위 딸이 소매 걷어붙이고 오래된 물건 버리고 새 물건 들어오는 공간 만들기에 나섰다. 이젠 누가 사준 건데, 저건 아직 쓸 만한데 하며 버려지는 물건에 미련을 자꾸 보이니 방에 들어가 쉬시라며 등을 민다. 엄마가 안 볼 때 버리자고 작당하는 소리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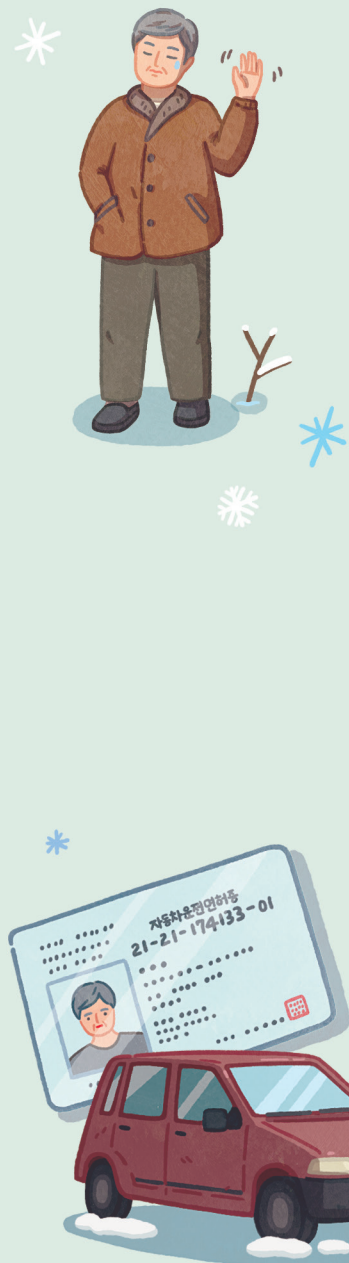
세월의 더께가 눌러앉아 앉은뱅이처럼 자리를 차지하던 역사적인 물건들이나 일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부터 몇십 년 묵은 추억 소환거리도 가차없이 대문 밖으로 내쳐졌다. 묵은 물건들과 나와의 관계는 아예 목살한 채다. 평생 버려지지 않고 나보다 오래 남을 것 같던 물건이 하나하나 눈앞에서 떨어져 나갔다. 막상 눈앞에서 오랜 지기 같은 살림살이들이 1톤 트럭으로 세 번이나 쫓겨나가는 모습이 영 언짢다. 마음도 험하다. 묵은 세월 함께 지낸 물건들 껴안고 사는 것도 때론 살아가는 힘일 수 있는데 애들은 안 늙어봐서 모르는 모양이다. 영원한 게 어디 있으랴. 내가 더 늙으면 어차피 또 버려질 것들이 나오겠지. 엄마를 위한다고 애쓰는 데 맞추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싶다.

이제 구닥다리는 나만 남았고 집은 탈탈 통째로 털어 낸 듯 말끔해졌다. 벽지, 장판, 문도 새것으로 교체하며 문턱도 없앴다. 반들반들, 짜임새 있게 편리하게 제 자리를 잡은 집안은 젊은이와 아이들의 온기가 더해 혈관이 생생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노인은 힘을 합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젊은이가 힘을 모으니 며칠 만에 똑딱 정리가 된다.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 아닌 바에야 슬퍼하고만 있을 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젊은이의 손을 빌려 시원하게 해치웠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는다. 곧 오래 대해왔던 것처럼 몸에 편하게 배겠지. 사람도 맞춰 사는데 물건들이야 어떡려고, 그래도 여전히 모든 옛날이 그립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

진상용 [인천시 부평구]



말씨 고운 편인 아내한테까지 강통이네, 고조선 달구지네, 우스갯소리 대상이던 놈이었다. 스물 몇 해를 부려 먹다 보니 정이 든 데다, 내 소유가 된 물건들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오래 굴리긴 했다. 얼마 전에 폐차 처리한 승용차 이야기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 이후로도 살림 형편 빠듯하고, 둘 다 기계치여서 웬만한 가정이면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차가 용에 관심 없이 살았다. 가족들 이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애들부터 고생이라 가장 체면 깎여나간들 그때 지나가면 바로 잊었다. 27년 전, 어쩌다 인맥 관계 맺은 자동차 딜러에게 설득당해 중고 경차를 떠맡으면서 무용지물이던 장롱 먼허도 세상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야 남의 물건처럼 어색할 뿐, 생업과 일상에서 유용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됐다. 하지만, 세월 가다 보니 여기저기 말썽 피우고, 주행거리 30만km를 넘기면서부터 생돈 축내는 애물단지, 세워두는 날이 늘어갔다. 얼마 전, 지방에 사는 지인의 행사에 참석하려고 차를 탔는데, 시동 소리부터 심상치가 않더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차가 멈춰 섰다. 한참 만에야 손봐주러 온 수리 기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는데 오래된 차라 부품을 구하기 쉽지 않고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더 이상 속 끓일 것 없이 처분하기로 했다. 며칠 뒤, 차를 견인하러 온 기사와 폐차장에 동행했다. 현역은 퇴한 탈 것 중에서도 우리 차가 가장 초라해 보이고 맘이 찡하다. 부족한 주인 만나서 가는 곳마다 괘시 받고, 공해물질 발생기라며 눈총 맞던 낡은 경차와 이별할 순간이 돼서야 그동안의 수고를 알아주다니. 마치 한 생명체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처럼 착잡해졌다. 비록 무심한 주인이었지만 끝까지 눈 맞추어 줬으니 덜 서운했기를. 차들의 무덤에 녀석을 남겨둔 채 돌아오는 내내 빈속이 거북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편히 쉬라는 은퇴 위로가 옛말이 된 현실 속에서 내 능력이 활용될 빈자리를 찾아 다녔다. 내가 차를 그렇게 했듯 나 또한 낡았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빨리 팽개쳐진 건 아닐까. 남들이 내놓은 중고차라도 알아보자는 아내 설득을 미리 차단할 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70줄에 들어서면서 몸쓸 기계 치매 증세가 도지는 데다, 끝까지 소임 다하고 떠난 사물을 일찍 배신하면 안 될 것 같은 잔 정도 명분 중의 하나다. 어느덧, 삶에서 하나씩 정리해야 하는 ‘반납 세대’에 들어섰다.

균형 잡힌 일상 찾기

김은경 [경기도 김포시]



퇴근하는 차안에서도 업무 메신저 소통은 계속 이어졌다. 집 앞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동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내일 출근하자마자 할 일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서자 그제야 집안 꼴이 보인다. 밀려 있는 빨래와 설거지, 미처 분리수거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일주일째 청소를 안 해서 끈적끈적한 바닥.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9월이 시작되자마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무량이 쏟아진 이후, 하필이면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결근에 업무 실수까지 겹치면서 나는 그야말로 맨붕이었다. 하루하루 간신히 밀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느라 점심밥 편하게 먹을 새도 없이, 퇴근 후 운동할 시간도 없이 온전히 회사 일에 매몰되어 버렸다. 퇴근 후에도 컴퓨터를 켜서 업무파일을 다시 보고 새로 파일을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업무 걱정엔 잠도 오지 않았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좋겠다는 끔찍한 상상까지 하면서 아등바등하다 보니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는 결론까지 왔다. 그 결론이 루저(loser) 같아서 마음이 안 좋지만, 승자가 된다고 해도 그게 나를 위한 승리 같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무너진 내 일상을 회복시키는 거다.

나는 청소부터 시작했다. 쌓인 먼지들이 걷히고 아무 데나 늘어져 있는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 놓았다. 머릿속에 있는 어지러운 생각들도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았겠지만, 그냥 청소하면서 잠시 잊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가스레인지도 닦았다. 닦은 김에 오랜만에 집 밥을 먹고 싶었다. 그래봤자 간단한 된장국을 끓이는 게 전부지만, 소소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보니 혼돈의 도가니였던 일상도 조금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크게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었다가 내쉬었다. 마음을 시끄럽게 하던 부유물들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리도 필요하다. 금요일이다. 퇴근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회사 메신저의 상태를 off로 바꿔 놓았다. 월요일 출근한 후에 다시 on으로 바꿔놓을 예정이다.

다음호 <일상의 향기> 주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입니다.

또 다시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은 언제나 출발선에 설 수 있지만, 시작하기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응원입니다. 나를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진심을 다한 응원은 넘쳐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응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4~5매 (원고 접수 시 주소와 연락처 기재 必) 마감: 11월 30일 문의전화: 02-511-7053 이메일: essays@naver.com
우편: (우) 0653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 채택된 본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하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 표절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Recipe_01

과메기 오일 파스타



재료 | INGREDIENTS_2인 기준

과메기 4줄, 마늘 8알, 파스타면 200g, 페페론치노 5개, 올리브오일 2/3컵,
타임 2~3줄,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레몬즙 1큰술

만드는 법 | DIRECTIONS

1. 과메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마늘은 얇게 썬다.
2.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넣고 포장지에 적힌 조리 시간보다 3분 덜 삶아서 건져낸다.
3. 팬에 마늘과 올리브오일을 넣고 중약불에서 마늘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는다.
4. 과메기, 페페론치노, 타임을 넣고 1~2분간 더 볶다가 삶은 파스타면을 넣는다.
5. 면수 1/3컵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2분 정도 더 볶는다.
6.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넣고 가볍게 섞는다.

Recipe_02

코코넛 티라미수라떼



재료 | INGREDIENTS_1잔 기준

카누 티라미수라떼 2봉, 코코넛 밀크 3큰술, 뜨거운 물 100ml, 생크림 3큰술,
크림치즈 1큰술, 연유 1큰술, 소금 약간, 코코아 파우더 1작은술,
토피용 코코넛칩 약간

만드는 법 | DIRECTIONS

1. 볼에 생크림, 크림치즈, 연유, 약간의 소금을 넣고 고루 섞는다.
2. 잔에 카누 티라미수라떼 2봉과 코코넛 밀크, 뜨거운 물을 넣고 고루 섞는다.
3. 라떼 위에 ①의 크림을 듬뿍 얹고, 코코아 파우더를 뿌린다.
4. 마지막으로 코코넛 칩을 올려 완성한다.

골목을 걸으며 즐기는 일상 속 행복한 순간 ‘맥심골목’ 팝업스토어 운영

동서식품은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북 군산시 월명동에 ‘맥심골목’(Maxim Street)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감성, 미식을 즐길 수 있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지다.

맥심골목은 월명동의 로컬상점 5곳을 포함해 거리 전체를 맥심 테마의 골목으로 꾸며 걷기만 해도 맥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제품, 문화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맥심골목은 ▲맥심방앗간 ▲맥심운세 ▲맥심슈퍼 ▲맥심놀이터 ▲맥심한의원 ▲맥심부동산 등 각각 특별한 콘셉트를 담은 6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맥심방앗간’에서는 나만의 원두 커피 취향을 찾아보고 커피와 어울리는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타로점을 콘셉트로 한 ‘맥심운세’에서는 맥심 티오피와 함께 신비로운 타로방 컨셉의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맥심 커피믹스로 만든 한정 메뉴와 귀여운 장바구니 키링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맥심슈퍼’, 탁 트인 공간에서 커피

도 마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맥심놀이터’, 커피 문진표를 작성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맥심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맥심한의원’, 맥심의 브랜드 스토리를 체험하고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굿즈를 증정하는 ‘맥심부동산’ 등 다양한 공간 컨셉에 어울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맥심 마이 포인트’ 앱을 활용하면 골목 이용방법 및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후기 사진을 손쉽게 SNS에 공유할 수 있다.

동서식품 이재익 마케팅 매니저는 “‘맥심골목’은 골목을 따라 걷기만 해도 맥심 브랜드만의 감성을 경험하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공간”이라며 “특색 있는 감성 가득한 골목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일상 속 행복한 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소비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주도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서울 성수동 ‘모카책방’, 부산 ‘모카사진관’, 전주 ‘모카우체국’, 서울 합정동 ‘모카라디오’ 등 다양한 콘셉트의 맥심 브랜드 체험 공간을 선보였다.



깊어가는 가을에 문화로 더하는 사랑 ‘제14회 동서커피클래식’, ‘제17회 사랑의향기’ 성료

동서식품은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제14회 동서커피클래식’과 ‘제17회 맥심 사랑의 향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서커피클래식은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되었으며, 1,20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지휘자 정나라가 이끄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연주와 피아니스트 조재혁,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소프라노 박순영,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 테너 김성현 등 국내 유명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오전에는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동도초등학교에서 ‘제17회 맥심 사랑의 향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동서식품은 동도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3,8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와 교육기자재를 전달하였고, 전날 동서커피클래식에 참여한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들이 직접 악기 연주를 지도하는 재능기부를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육아용품 키트 전달 ‘한부모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나눔 봉사활동’ 진행

동서식품은 지난 9월 26일, ‘한부모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이우식, 물티슈, 영양제, 장난감 등 다양한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작했다. 특히 아이들의 숫자 공부를 위해 손수 만든 숫자책을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육아용품 키트는 5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 83곳에 전달된다.

동서식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직원 봉사활동 외에도 임직원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

고 매칭 그랜트로 함께 하는 등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vent Review
01

2024년 10월 독자이벤트 후기
가을엔 커피, 그리고 향기로만 만남

커피향기가 참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이태원에 있는 맥심플랜트에서 '2024 독자 초청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커피를 좋아하고, 동서식품을 응원하는 독자 12명이 모여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향기로만 만남은 동서식품 브랜드 체험사업팀의 커피아카데미 강연과 스페셜티 소개, 다양한 커피 원두와 로스팅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에 대해서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저녁나들이

- 유수경(서울 강동구)

동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간 맞춰 도착한 이태원 맥심 플랜트. 친구들과 여러 차례 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셔본 카페였기에 낯설보다 친근감이 들었다. 오랜만의 방문임에도 맥심플랜트는 사람 그것도 젊은이들로 여전히 북적였다. 이곳에 올 때마다 궁금했던 지하 커피 공장과 학구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카페를 지나 약속 장소인 지하 2층에 도착했다.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단정함과 품위, 그리고 풍성한 커피 관련 전시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실 무엇을 하는지 정보도 없고, 다만 향기로만 만남이 있을 거란 막연한 상상으로 참여한 행사였기에 큰 기대는 안 했다. 사람들이 모여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품평하고 서로를 관찰하는 사교 모임 정도 아닐까? 한마디로 내 공상을 박살 내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두 시간 내내 뽀뽀하게 이어진 강의를 듣고 직접 시음하며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되새겼다.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를 탓하지 않으려 열심히 필기했다. 사실 커피도 와인처럼 내 입에 맞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원산지, 가공, 로스팅의 큰 카테고리를 두고 하나하나 되짚어 주는 강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성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쏟아부으며 만들어지는 커피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개인적으로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원산지의 테루아(=토지), 기후, 환경이 맛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원두에서 생두를 얻는 두 가지 공정에 따라 맛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심지어 고지대에서 직접 손으로 커피콩을 채취하는 체리 피커의 삶이 엄청 고단할 거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무엇보다 앞으로 커피를 사 마실 때, 그동안 못 알아들을 말로 쓰여 외면했던 커피 안내서를 이제 조금은 아는 체할 수 있겠다.

시간을 꽤 채워 열강한 강사님은 물론 맛난 커피로 공부도 하고 잠시 쉴 쉼을 주었던 바리스타님, 무엇보다 점점 무디어져 가던 머리를 췌하니 깨워준 삶의 향기 관계자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저녁 나들이를 했다.

* 본 후기는 이벤트에 참가하신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후기 중 선정된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11·12월호를 읽고 떠오르는 신간이나 기억에 남는 도서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이메일) essayds@naver.com * 접수 마감: 2024년 11월 30일(토) (이름, 연락처, 주소 기재)

Pretty Postcard
02

아날로그의 감성 그 진심을 담다
독자여러분의 정성으로 가득찬 예쁜엽서를 소개합니다

* 예쁜 엽서 당첨자

김미애_경기 고양시
박경원_서울 동대문구
박영수_서울 양천구
이주희_경기 화성시
함영림_경기 군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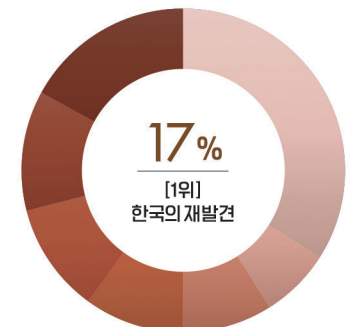


Preference Column
03

선호도 칼럼 조사
9·10월호 독자여러분의 선택

독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총 365건(10월 2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칼럼으로 '한국의 재발견'과 '길 위의 시간', '클래식 산책', '올댓 커피', '도시를 걷다', '차 한 잔의 향기'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위] 한국의 재발견	17%	[4위] 올댓 커피	10%
[2위] 길 위의 시간	12%	[5위] 도시를 걷다	9%
[3위] 클래식 산책	11%	[6위] 차 한 잔의 향기	7%
		기타	34%



독자의견



한국의 재발견

시골 친척집에 가면 처마 밑에 벼, 수수 등을 매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듬해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풍습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김희숙_경기 과천시



올댓 커피

헤밍웨이와 체 게바라가 쿠바인이 아님에도 쿠바를 사랑하고, 쿠바에 오래 체류하며 커피를 그 무엇보다 더 사랑했다는 내용이 의외였고, 한편으로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최지만_광주 동구



클래식 산책

구스타프라는 이름을 가진 작곡가와 화가를 예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소개, 대비시켜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의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김영순_서울 송파구



길 위의 시간

여동생이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느낀 생생한 후기를 이야기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면 속 포르투갈 사진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조성환_강원 고성군



도시를 걷다

오래 전 단양팔경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재밌게 봤습니다. 조만간 새롭게 더해진 '외전'을 꼭 보러 가야겠습니다.
백귀혜_인천 강화군



차한 잔의 향기

한수정님을 보면서 나무를 알아가고 바라보는 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한 기분이 들어 매일 아침 식물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박지희_전북 임실군

독자퀴즈

좋은 토양과 알맞은 기후를 가진 엘살바도르는 세계 20대 커피 생산국이다. 이 나라에서 재배하는 커피 중 가장 많은 품종으로, 생산량은 적지만 초콜릿 단맛과 풍부한 후미가 좋아서 국제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품종은 무엇인가?

- ★ 23쪽을 참고해 독자엽서로 응모하세요. 마감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 문제로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엽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표기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정답

클림트

- 9·10월호 정답자는 322명입니다. -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상품은 11월 중 배송됩니다

김금순 경기 군포시
김도연 부산 남구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김동한 울산 남구
김민애 서울 강남구
김민주 서울 강동구
김봉자 인천 부평구
김선희 인천 서구
김영미 서울 노원구
김윤경 경기 평택시

김지혜 서울 송파구
김필문 경기 안산시
박명석 서울 영등포구
박미순 대구 서구
박재욱 서울 도봉구
박종국 전남 목포시
박현주 경기 광명시
박혜영 인천 강화군
서여선 충남 계룡시
송정훈 인천 부평구

신선례 광주 남구
심영숙 서울 관악구
안수복 전남 신안군
안승숙 경북 경산시
안정훈 대전 유성구
양경희 서울 동작구
여순곤 서울 용산구
우승경 충북 청주시
윤재율 광주 서구
이서영 대구 달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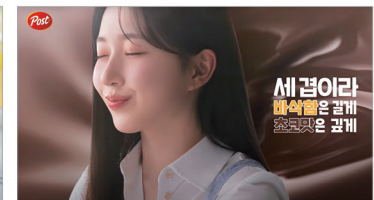
이순이 경남 함안군
이윤미 충북 청주시
이종애 경기 동두천시
이재현 경기 구리시
이현희 인천 남동구
이효실 경기 용인시
장효남 전남 진도군
전민영 경기 수원시
전은주 경기 오산시
정옥영 강원 춘천시

차수정 광주 광산구
차옥환 대구 달성군
최낙현 경기 성남시
최도형 부산 연제구
최영희 경기 성남시
최은숙 경기 성남시
한영자 서울 양천구
현 호 전남 여주시
황숙희 부산 동래구
황태복 경기 부천시

오래 바삭한 초코 시리얼 만들기

바삭함은 길게, 초코맛은 깊게
세 겹바삭한 레시피

크리치오



쫄하게 부드럽게

라떼처럼 즐겨봐



Maxim.
**SUPREME
GOL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는 동서식품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입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불가피하게 사외보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경로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독 신청 안내

당사의 사외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께서는 ①홈페이지 본인 인증 또는 ②독자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www.dongsuh.co.kr → 홍보센터 → 웹진 삶의 향기
→ 신규 구독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호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독자 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2.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종지요청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당사는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 케이아트만㈜, ㈜인스팟, 월드피에이디
2. 위탁 업무 내용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3. 동서식품(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엽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의사항】 사외보〈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편집실

Tel : 02-511-7053 / E-mail : sarmhyang@naver.com (수탁자 케이아트만㈜에서 진행합니다.)

· 이 름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 신규 ☐ 변경 ☐ 중지 ☐ 기존

독 / 자 / 의 / 견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칼럼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퀴즈/정답

· 정 답 :

· 연락처 :



정답자 상품 배송을 위해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
요
수

보내는 사람

$$\frac{0}{0/2}$$

주인

바는 사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층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0 6 5 3 0

사람과 사람, 함께 하는

사자의
행거

2024 * No.49

November+December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는
맥스웰 향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클로드 모네_〈아르장튀유의 설경〉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빈송유호기간
2023.05.01 ~ 2025.04.30

서울서초우체국
제 41389호